

12·12 군사반란과 어리석은 군인 김오랑

글 · 김준철 moochulk@yahoo.co.kr

이미 30년 전 1979년 12월 12일은 그 사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격동의 민족사에서 잊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79년 10·26사태로 18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정권의 종말과 민주주의에 역행한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서울의 봄'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인류사적 기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동적 사건이 신군부에 의해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어 유신독재가 몰락하면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노태우 소장 등 군부내 비밀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하여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계엄

보안사에 모여 기념촬영한 12·12반란의 주역들

사진 경향신문



사령관직에 있던 정승화 총장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체포구금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특전사령부 등 주요 군 시설을 점령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군권장악일 가능성이 있다. 12·12사태를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이다.



1979년 12월 13일 경복궁

30년전 12월 12일에 무슨 일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0·26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부근에 있었다는 것이 12·12사태의 빌미가 되기는 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내란의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반란에 협력하는 일부 장성들과 총리공관을 찾아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동의에 대한 재가를 요구할 때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80년 3월 13일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내란 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의 선고와 이등병 강등이라는 불명예 제대를 시키지만 신군부 측이 처음 제기한 금품수수 혐의는 빠져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판결문이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와 같은 군권장악을 획책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해방이후 정부수립과 더불어 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정을 거친 장교들이 배출되었고, 심지어는 4주과정을 거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과정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장교들이 일시에 배출되었다. 4년제 정규육사 1기출신인 육사1기들에게는 이전의 육사출신과 종합행정학교, 갑종출신의 선배장교들이 진급과 보직에 장애물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상황에서 5·16쿠데타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전두환은 생존을 위한 모험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군부의 장성급 구조를 보면 이전 육사출신과 육군종합학교출신, 갑종출신들이 보직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50세를 막 지났을 뿐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예상되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동해시 동해경비사령부로 좌천될 것이라는 루머가 12·12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인 하나회 멤버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회를 통해서 12·12군사반란을 준비했다. 일선의 대대장과 연대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정규육사출신 세력 또한 조직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지세력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정규육사출신 장교단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였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26직후에 벌써 일본의 매일신문이 '한국의 군권을 전두환이 잡았다' 라고 기사화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정확히 정규육사 1기로 시작되는 육사 11기 이후의 장교단의 파벌역량을 조직공학적으로 진단했다는 것이다. 그런 군권의 흐름을 우리 군의 수뇌부만 몰랐던 것이다. 이처럼 12·12사태만은 군부 내의 구조적인 군의 기강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2·12사태 이후에 초래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5·17비상계엄확대로 정권장악, 초법적 기관인 국보위설치, 최규하 대통령 하야 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성과 교훈은 온전히 민주시민의 몫으로 남는다.

특전사령부를 최우선 점령하라!

1979년 12월 13일 0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다. 전날인 12일 저녁 7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장공관에서 울렸던 총성이 12·12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면 이 시각 특전사령부에서 울린 총소리는 그 마지막을 고하는 것이었다. 수도권 주변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대는 수경사와 특전사가 있었지만 수경사는 장태완 사령관이 부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부대장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가용병력을 거느리고 있던 30경비단과 33경비단의 두 단장이 쿠데타세력의 주력 병력이 된 상황에서 최강의 전투력과 기동성을 가진 특전사의 무력화와 사령관 체포는 쿠데타 성패의 분수령이었다.

특전사령부에서 총소리가 있기 전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이 사령관실에서 황망히 뛰쳐나온다. 최 준장은 마지막으로 정 사령관을 회유하려 왔던 것이다. 비서실에 있던 김오랑 비서실장의 귀에는 사령관의 고함소리만 들렸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중령시절인 1961년 5·16 쿠데타 당시에도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 이후에 군으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기간 군정(軍政)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알고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다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체포된 아픈 과거가 있었다. 당시 5·16쿠데타 세력에 체포되어 경희루 기동에 묶여 있다가 3개월 간 군 영창에 감금되었다.

군인의 길밖에 몰랐던 외골수 군인에게 쿠데타에 협력하라는 회유가 통할 리가 없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74년부터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해 특전사의 형성기를 주도했다. 제7, 9, 11, 13공수여단을 창설시킨 장본인이며 60년도 말 공수단장시절에는 전두환을 부단장으로 데리고 있었다. 특전사령관 재임시에도 9공수여단장을 거쳐 간 노태우는 물론이고,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이 사령관의 직속 부하들이었다. 이같이 부하였던 장교들이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쿠데타에 협력하라고 회유하러왔다는 것에 협력은 물론 용인조차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돌아간 뒤 10여분 후에 3공수여단 15대대장 박 모 중령이 이끄는 10여 명의 체포조가 사령관실로 진입한다.

그 시각 특전사령관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만이 사령관을 지키고 있었다. 당일 저녁 8시부터 출동준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있어 전군은 비상사태이며 특전사령부 역시 모든 참모부장교들이 출동준비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간부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 주변 군부의 핵심 병력운용의 부대장인 대대장과 연대장이 육사출신 하나회에 의해 장악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신군부 측에 지지를 요구하는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오랑 비서실장에게도 신군부 측의 회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배와 동기를 통해서 회유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김오랑 소령의 신념을 굳히는 자극제가 되었다. 김오랑 소령의 옆에서 특전사령관의 동태를 지켜보던 특전사 보안반장인 김충립 씨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오랑 소령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권총에 8발의 실탄을 장전한다. 정확히 신군부 측의 하극상 기도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같은 세력에 의해 특전사령부의 생존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사령관의 안위를 지켜야만 했다. 그는 삽탄된 권총을 들고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근다. 비서실을 통해서 진입한 체포조는 사령관 집무실이 잠겨있는 것을 알고 자물쇠를 향해 M-16을 일제히 발사한다. 동시에 안에 있던 김오랑 비서실장의 권총도 불을 뿜는다.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김오랑 중령은 복부와 허벅지, 가슴에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다. 체포조에서도 나 모 대위, 김 모 대위 그리고 심 모 상사가 김 소령의 총탄을 복부와 양손에 맞고 쓰러졌을 만큼 저항은 격렬했다.

김오랑 비서실장은 누구인가?

김오랑 소령은 경남 김해에서 출생하여 69년 육사 25기로 임관해 2사단 수색중대를 거쳐 맹호부대로 월남파병을 다녀온다. 74년 3공수여단 중대장으로 보직명령을 받으면서 특전사와의 인연은 시작된다. 특전사에서 중대장과 작전장교를 거쳐 지역대장까지 44개월의 긴 보직을 마치고 소령으로 진급을 한 후 육군대학과정에 입교를 한다. 육대를 졸업한 후 다시 특전사로 원복을 한다. 대개는 특전사에서 이같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육대과정을 마치고 후방지역과 본인이 원하는 편안한 보직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력장애를 갖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시각장애로 2세를 가지는 것을 미룬 것은 물론이



김오랑 묘

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특전사로 다시 원복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79년 2월에 특전사 5공수여단 부대대장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달 후에 운명의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차출된다. 비서실장의 역할은 사령관을 업무적으로 보좌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로서 특전사에서 잔뼈가 굵은 김 소령이 적임자였던 것이다.

김오랑 소령의 부인인 백영옥 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어쩌면 아내보다 하루라도 더 살다가 죽는 것이 김 소령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그 같은 아내를 12월의 그 날, 긴긴밤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당시 체포조를 끌고 온 3공수여단 15대대장인 박 모 중령(육사, 23기)과는 육사 선후배 사이로 같은 군인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도 동부인하여 저녁을 같이했을 정도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완전 실명한 백 씨는 노태우 정권이던 90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과 최세창, 박종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온갖 압력으로 보류되다 91년 6월에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다. 남편을 잃고 4,000일을 어렵게 살다가 그녀마저 의문의 죽음으로 떠난 것이다.

백 씨는 화장되어 부산의 영락공원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연고자가 없어 지금은 부산시립묘지 외곽에 있는 무연고자 산골터에 뿌려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죽은 다음에도 같이 놓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죽기 2년 전, 남편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행방불명된지 139일이 되던 89년 3월에 양주의 송추계곡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97년 대법원에서 12·12를 군사반란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정 장군의 묘비는 여전히 비문 없는 백비(白碑)의 한(恨)으로 남겨져 있다.

정병주 묘



김오랑 중령 추모회가 기념하는 것들

추모회는 매년 6월 6일과 12월 12일에 현충원에서 조출한 추도식을 연다. 김 중령의 추도식은 백비(白碑)의 한(恨)을 안고 잠들어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묘역과 12·12 당시 사망한 국방부 헌병소속의 정선엽 병장과 수경사 33헌병단 박윤관 상병의 묘역참배에 이어서 진행된다. 아직까지는 특전사나 육군사관학교 모두 추도식 참여의

사를 보이는 곳은 없다. 12·12와 관련한 인사의 참여도 없다. 지난해 29주기 추도식에는 고인의 고등학교 동문들의 참여가 있었다.

추모회는 불행한 시대에 잠시 살다가 떠나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오래도록 우리 곁에 빛으로 살아있을 한 사람의 삶을 추모하고자 그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행동과 같은 질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일한 불의(不義)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正義)의 길'을 택한 김 중령의 죽음이 군인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건전한 국민들의 표상이 되기를 바란다.

30주기인 올해 12월에는 김오랑 중령의 평전인 '어리석은 군인 김오랑'을 출판할 예정이다. 또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기념비 건립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 전에 있는 건의안은 20여 명의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았는데 12·12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부관으로 있었던 육사동기생인 황 모의원과 동기생 권경석 의원, 서종철 의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건의안 통과까지는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통해 군의 정훈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장병들에게 교육되어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이같은 의로운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화로도 제작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김오랑 중령의 발자국을 더듬으면서 '12·12군사반란'과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에 대한 남겨진 숙제를 완성할 의무가 남아있다. 12·12군사반란을 상황별로, 세대별로, 인물별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 중앙정보부장 검직과정,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통한 정권탈취, 국보위를 통한 정권탈취 작업,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전두환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시민들을 조롱했던 8개월간의 역사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당시 민주시민세력과 위정자들의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반면교사(反面教師)가 되기를 바란다.